

# 40년된 전주 1산단 도시형 산단 탈바꿈

### 전북도, 3년간 1300억 투입 리모델링

조성된 지 40년이 넘는 전주 제1 산업단지가 도시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전북도는 “올해 재생지구로 지정된 이 산업단지를 1천300여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3년간 친환경적인 도시형 산단으로 새롭게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산단내 도로 11개 노선(5.7km)을 확·포장하고, 공원 6곳(4만5천여㎡)과 주차장 8곳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단지안에 기숙사와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방치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주변 지역 11만여㎡를 개발할 방침이다.

1969년 전주에 제일 먼저 조성된 이 산단은 기반시설이 낡아 그동안 근로자들의 불편이 컸다.

전북도 관계자는 “슬림화한 산업 단지가 주거와 산업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면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고창군-의회 ‘예산안 부결’ 갈등

### 공무원 노조 반발·재심 촉구... 郡 대책마련 고심

고창군의회가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양 기관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은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재상정하기 위해 예산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위원 설득도 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창군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고창군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앞서 의회 결정위는 총 예산 4023억원 중 142억을 삭감 의결해 상임위에 상정

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논란 끝에 투표를 붙여 의원 10명 가운데 찬성 5명으로 과반을 확보 못해 예산안이 부결됐다.

고창군은 초유의 ‘예산안 부결’에 대해 당황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이하 노조)은 군의회의 예산안 부결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24일 고창군청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회는 고창군민의 대의 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새해예산 심의에 있어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목적에 편승하지 않았는지 깊은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재심의를 촉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에 대한 소명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부족해 초유의 부결사태가 발생한 한 것 같다”면서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 군산시 3곳 선정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 주관의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돼 국비 1억4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가산단 군산 친환경 자동차 부품 R&D센터 내에 ‘산단단지 작은도서관’과 옛 서수보

건소에 ‘서수 작은도서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내 ‘수미 작은도서관’이 선정됐다.

신재현 시립도서관 관리과장은 “시설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 등을 마치고 2013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김상준 행복하루연구회장 ‘최고농업 기술명인’

김상준(55) 행복하루연구회 회장이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의 ‘2012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2012 대한민국 최고농업 기술명인(축산분야)에 선정됐다.

30여년간 한우를 사육해온 김회장은 ‘고급육 생산이 한우농가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우 종자개발과 차별화된 사양관

리, 무항생제 친환경 한우 생산 등 끊임없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몽은 지난해 이석변(64) 정읍 수박연구회장이 채소분야 최고농업 기술명인에 선정된 이래 2년 연속 농업분야의 최고농업 기술명인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금과면 복지회관 내년 9월 준공

순창군 금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과면 복지회관이 내년 9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최근 12월 설계용역을 마친데 이어 내년 1월 안에 행정절차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3월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회관은 지상 2층(연면적 480㎡) 규모로 노인회사무실과

농업인상담실, 회의실 등 공공시설 기능을 집중시켜 면사무소와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설계용역 추진 과정에서 면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물 배치계획과 실비 이용면적 등을 결정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지사 표창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4일 열린 ‘2012 우수청소년 상담기관 및 우수청소년상담자 시상식’에서 전북지역 최우수 상담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동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

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89년 5월 개소한 센터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지역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 고창 내동마을 도내 유일 ‘산불 없는 마을’

고창읍 내동마을이 산림청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불 없는 마을’에 뽑혀 현판과 상금을 받았다.

산림청은 산림이 넓으면서도 5년간 산불이 나지 않은 전국 16개 시골마을을 ‘산불 없는 마을’로 선정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내동

마을은 46가구 주민 102명의 산불예방 경각심이 높고 반상회와 회의에서 산불예방 교육을 지속했다.

또 산불 취약가정을 방문해 경각심을 높이고, 산과 접한 논밭두렁의 잡초와 폐기물은 공동 소각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고창 청소년 스키캠프

고창지역 청소년들이 최근 무주 리조트에서 스키 기본기를 배우고 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스키캠프에는 관내 8개 중학교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고창군 제공>

### 정읍 농민 40여명 고구마연구회 출범

정읍지역 농업인들이 고구마 산업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기 위한 고구마연구회(회장 정두창)를 출범했다.

정읍지역 고구마 재배농가 40여명은 지난 21일 연구회를 발족, 앞으로 고구마 품종의 단일화 및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구회는 내년 1월중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구회는 정읍 고구마를 생산에서 가공·유통·체험까지 ‘6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출발을 한 만큼 앞으로 정읍시와 서울시립대 김선형 박사팀, 생산농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두창 회장은 “서울시립대의 기술협력을 통한 무병종순 생산으로 정읍 고구마의 품질을 높이고 수량을 늘려 이미 개발한 재성형고구마·고구마칩·고구마당과 등 가공 상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 회원간 농업정보를 공유하고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회원간 화합과 참여도가 중요하다”며 고구마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립대 김동규 농학박사는 “현시점에서 고구마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무병종순 생산 시스템을 통한 생산량 증대, 유색 고구마 단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북 농수산물 수출 1억7천만 달러... 18% 증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북도의 농수산물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농·수산물 수출 금액은 1억721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억4540만 달러보다 18.4%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전체 증가율 5.9%를 웃도는 수치로, 광역시를 제외한 국내 9개 도(道)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이 9100만 달러로 8.7% 늘었고 ▲축산물(1930만 달러) 3.7% ▲임산물(1600만 달러) 84.7% ▲수산물(4580만 달러) 33%의 증가를 각각 보였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전체 수출의 35%의 점유율을 보인 일본이 1위를 차지했고, 중국·태국·대만·미국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순창군 내년 농업예산 660억...올해보다 12% ↑

순창군이 내년 농업예산 660억원을 투입해 농가소득 증대에 발벗고 나선다. 이는 올해 540억원보다 12% 증가한 규모이다.

군은 올해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0대 작목을 선정 집중육성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660억을 투입해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이 한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내년도 사업추진 로드맵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계획대로 추진해 농정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lee@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